

민주당 경선 컷오프 후보들 반발·승복 엇갈린 행보

“납득 어렵다” 재심 신청 의사 “당 승리 힘쓰겠다” 일부는 승복 광주 광산갑 지역구 등 1차 발표 제외에 ‘설왕설래’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가 6일 광주 3곳을 포함한 1차 경선 지역을 발표하면서 경선 후보에서 배제(컷오프)된 예비후보들의 반발이 거세다.

컷오프(공천배제)된 예비후보들은 동남갑에서 노형욱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경훈 이재명의 기본 사회연구소 소장, 북구갑은 문상필·진선거 전 광주 시의원, 북구을은 김세미가 디지털시대공감 이사장·조현환 광주전남정치개혁연대 공동대표 등이다.

이날 컷오프된 일부 예비후보는 공관위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심 신청 의사를 밝혔다.

오경훈 예비후보는 “정치 신인으로서 도덕성에 흠결이 없고 현역 의원보다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다 정치 신인 가산점 등을 고려하면 시스템 공천상 3인 경선에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이러면 정치 신인은 어떻게 당내 경선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것은 당의 혁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재심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노형욱 예비후보도 “즉시 재심 신청을 하고 2인 경선에서 제외된 이유를 들어 봐야겠다”고 밝혔다.

문상필 예비후보도 “재심 신청을 하기로 했다”며 “그동안 민주당에 했던 역할이 있고 전국의 장애인 후보가 1명밖에 없는 상태에서 배제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는 것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현환 예비후보는 “중앙당 결정을 수용

하고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 민주당 총선 승리를 위해 힘쓰겠다”고 컷오프에 승복했다.

김세미가 예비후보도 “캠프 회의 결과 (컷오프를) 당연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설 전까지는 아침 저녁 거리 인사는 계속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날 1차 경선 지역에 광주지역 3곳 선거구만 포함된 배경과 컷오프 기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남의 경우 선거구 확정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만큼 경선지역 발표가 늦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광주의 경우 일부 선거구가 제외되면서 각 예비후보 선거 캠프별로 각종 억측이 난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1차 경선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광주 동남을 선거구의 경우 8명의 예비후보가 난립하고 있고, 서구갑과 광산을도 각각 4명의 예비후보가 나선 상황이라서 경선 후보 선정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하지만, 광산갑 선거구가 이날 발표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지역 정치권은 의아해하고 있다. 현재 현역인 이용빈 의원과 박군택 당 대표 법률 특보 등 두 명의 예비후보가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2인 경선 지역구로 발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공관위 측은 1차 경선 지역 선정에 특별한 기준은 없었고, 논의된 순서에 따른 결과와 경선에 전혀 문제가 없는 선거구부터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당 관계자도 “보통 1, 2위 후보들과의 격차가 20~30% 이상 큰 차이가 나거나 큰 결격 사유가 공관위에서 제기됐을 경우 컷오프되는 것이다”면서 “이날 발표된 광주지역 3곳의 1차 경선 지역의 경우 이런 기준과 요건이 맞았기 때문일 것이다”고 설명했다.

최권일·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민주당 의원총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의원들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준연동형 유지, 민주적 과정 충분히 거쳐 결정”

민주당 “지도부서 포괄적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 이재명 대표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선언을 놓고 ‘선거제를 이재명이라는 한 사람의 기분에 맞춰서 정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선거제 퇴행을 막겠다는 야당 대표 결단을 비아냥냈다”고 비판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정치개혁을 외치면서 거꾸로 가는 선거제를 주장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야당 대표를 향해 반정거리는 한 위원장의 비겁한 태도가 정말 어처구니없다”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정권 시절 한 위원장이 흥분한 채로 ‘다 걸겠다’며 국감장을 일순간에 도박판으로 만든 망언을 내뱉은 것이 ‘기본대’ 하는 것이다. 쟁점 요청에 대해 예매한 기차를 놓치고, 화마에 삶이 터진 잃은 상인들은 외면하고 대통령의 꿈 무너만 즐비하다니 정말”이라고 깐아내렸다.

이해 “윤석열 대통령의 ‘기본’에 따라 나라가 우왕좌왕 휘청이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며 “마음에 들지 않는 야당 대표를 밀어내고 기분에 맞춰 채리 따봉을 날렸다. 해외 순방을 나가서는 기본이 나뉘는지, 국제무대라서 너무 들렸는지 ‘기본에 따라’ 욕을 하고 ‘바이든-날리면 막말’로 국격을 추락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한 위원장은 윤 대통령 ‘한 사람의 기본’에 맞추려 고통에 신음하는 상인들을 외면한 기신 같은 모습부터 돌아보고 부끄러운 줄 알라”며 “정치개혁이랍시고 선거제를 퇴행시키는 ‘말 따로 행동 따로’도 반성하라”고 몰아세웠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5000만명의 선거제도를 이재명 당 대표 한명에게 맡겼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우리는 민주적 과정을 충분히 거쳤다”며 “시민사회와 소통한 내용, 의원님들의 다양한 내용이 다 반영된 것이 지도부에서 포괄적으로 논의돼 최종적으로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준연동형 ‘민주개혁대연합’ 추진 비례 앞 순위 비 민주당에 할당 녹색정의당·진보당 연합에 주목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배분 방식과 관련, 현행 ‘준(準)연동형’ 유지를 당론으로 결정하고 사실상 위성정당 추진 방침을 밝히면서 성공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 심판론”에 동조하는 야권 세력을 끌어 모은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을 구축한 뒤, 통합형 비례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이지만 거대 야당에서 떨어지거나 ‘제3의 길’을 선택한 군소정당들은 민주당의 이 같은 행보에 부정적이어서 결국 연합 가능한 세력은 진보를 표방하는 군소정당으로 한정될 전망이다.

이대로라면 4년 전 총선에서 등장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유사한 형태가 되고, 자연스럽게 비례대표에서 군소정당의 몫이 생긴다.

당시 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번부터 10번을 비(非)민주당 인사들에게 할당했다. 김영배 의원은 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서 “(위성정당이) 20명을 공천한다면 11~20번을 민주당이 맡고, 앞 순번을 민주개혁 세력에 내어주는 게 만행으로의 책임 아닐까”라고 말했다.

이 경우 기본소득당과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 등으로 구성된 ‘새진보연합’은 별 이견 없이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기본소득당 율혜인 대표는 전날 이 대표의 입장 발표 후 이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율 대표는 21대 총선에서 이미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원내에 입성한 이력도 있다.

녹색정의당과 진보당은 ‘민주당이 제안해 오면 논의해볼 수 있다’는 원론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일단 구체적인 이해득실을 꼼꼼히 따져본 뒤에 결정을 내리려는 분위기다.

내부 상황이 더 복잡한 쪽은 녹색정의당이다.

녹색정의당은 4년 전 총선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 전략으로 6석을 얻는 데 그친 터라 이번에도 비례 위성정당에 동참하기에는 명분이 약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실리적인 면을 따져서 이 대표의 통합형 비례정당에 함께했을 때 더 많은 비례대표 의석이 보장된다면 내부에서도 동참하지는 않겠지 하는 의견이 힘을 받

을 수도 있다. 군소정당 중 가장 많은 현역 의원을 보유한 만큼 비례대표 1~10번 중에 더 많은 지분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추진 중인 정당의 참여 가능성도 대두되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신중론이 우세한 분위기다.

지역구 선거에서의 연합 여부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군소정당 중 전국적인 선거 조직을 갖춘 쪽은 녹색정의당과 진보당 정도다.

이들이 모두 후보를 내면 박빙인 지역에서 야권의 표를 분산시켜 여권에 반사이익을 줄 수 있는 만큼 야권에서는 지역구 선거에서 연합해야 할 당위성은 충분하다.

이들 정당 간에 합의가 이뤄진다면 녹색정의당·진보당 후보가 경쟁력과 당선 가능성을 갖춘 지역에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 방안도 거론된다.

같은 곳에서 세 번의 총선을 이끈 녹색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경기 고양 갑, 진보당 강성희 의원의 지역구인 전북 전주을 외에 진보정당이 강세를 보이는 울산과 경남 창원, 인천 등이 그 후보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민주·군소정당, 비례 넘어 지역구 연대 가능할까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링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중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중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봉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첨가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1997 테린인더스트리(주) 법인설립
2011 수출박람회, 수출유공자 수상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2016 중소기업부정부정관상 (유망중소기업인)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2023 국제형 모범업체 표창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아름다운 자연환경 창조!

테린인더스트리(주)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31120-중-161682호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무릎 인공관절 수술 고민될때!
첨단우리병원 원장님과 상의하세요!!

첨단우리병원

전화 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